패션 하우스의 디자인 정체성 연구

- 생 로랑 하우스를 중심으로 -

황 혜 림 · 박 은 경⁺

인천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졸업 · 인천대학교 패션산업학과 교수⁺

A Study on Design Identity of Fashion House

- Focused on Saint Laurent House -

Hyerim Hwang · Eun Kyung Park⁺

Dept. of Clothing & Textile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Industry, Incheon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date: 2014. 12. 8, accepted date: 2015. 2. 9)

ABSTRACT

This research was started to study how the design identity of an overseas fashion house was formed, changed and connected.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Saint Laurent House* was selected as the subject of the study, because it began as a couture house and launched the prêt-à-porter for the first time among the designer brands, and also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modern women's fashion. Literature survey on related books and papers was performed to study the *Saint Laurent House*. Then, fashion collection photos of the house from 1962 SS to 2014 SS were collected to analyze and compare the features of the designs. The photos were collected from related books, fashion magazines and internet sit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features of *Yves Saint Laurent's* early designs were contemporarily sensational with their couture tradition. His representative designs including Le Smoking, Pea Coat, Loose Fit Blouse, Safari Look, Jumpsuit, Ethnic Look and Art Look became the signature looks of the Saint Laurent House. His designs expressed the liberation of sex, multi-cultural sensitivity and the fusion of art and fashion. His successor, chief designer *Tom Ford* designed with strong sensitivity of his own. He dealt with *Yves Saint Laurent's* design themes and signature looks in sensual as well as trendy and sophisticated way. *Stefano Pilati* showed the Parisienne chic and elegance. He re-made the legacies of *Yves Saint Laurent* with his own design style using new materials or cutting technique. *Hedi Slimane* reinterpreted the signature looks of the house with his rock' n roll mood for young, modern women while reflecting the spirit of *Yves Saint Laurent's* early stage. In conclusion, the design identity of *Saint Laurent House* is not just a fixed one. By the subsequent chief designers, the signature items and design spirit of *Yves Saint Laurent* have been succeeded, reintroduced or changed to be trendy and to reflect the designers' design sensitivity. All of these make and maintain the design identity of the fashion house.

이 연구는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이 연구는 2013년도 인천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Eun Kyung Park, e-mail: ekpark@hanmail.net

Key words: design identity(디자인 정체성), fashion house(패션 하우스),
house archive(하우스 아카이브), Saint Laurent(생 로랑),
signature items(시그니처 아이템)

I. 서론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소비자들이 선망하는 해외 럭셔리 패션 브랜드는 수십 년에서 백년 이상 존속되어왔다. 한국 패션산업은 한국이 근대화되며 시작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아, 1950년대에 노라노 등이 최초로 디자이너 고급 맞춤복을 생산한 이래 1960년대에 디자이너 브랜드가 고급 기성복을 생산하였고 1970년대에 패션전문 대기업들이 등장하였다.¹⁾ 이후 한국 패션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아직 세계적인 럭셔리 패션 브랜드가 정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한국 패션의 발전을 위해서는 내셔널 패션 브랜드의 성장과 해외진출도 중요하지만 디자이너의 정신을 갖고 있는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정립도 필요하다. 해외 럭셔리 패션 브랜드는 쿠티르 하우스에서 이어져 온 경우가 많으며, 수석 디자이너가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품 브랜드의 위상을 지키고 있다. 그 이유는 시대의 변화와 후대 디자이너의 디자인 특성이 더해졌음에도 브랜드의 디자인 정체성(identity)이 지켜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외 럭셔리 패션 브랜드 특히 패션 하우스의 디자인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하며 이어져 가는지를 연구한다면 우리나라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정체성 확립과 계승,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패션 하우스의 디자인 정체성에 관한 선행연구들로 이예은²⁾, 이미숙³⁾, 광혜영⁴⁾, 정정희⁵⁾, 정정희 · 고현진⁶⁾, 공미선 · 채금석⁷⁾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하우스 창시 디자이너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오토 쿠티르(Haute Couture)만을 다루었고, 후대 수석 디자이너의 디자인 계승에 관한 연구를 하더라도 분석이 제한적이어서 패션 하우스의 디자인 정체성보다는 하우스 창시 디자이너의 디자인에 더 치중했다. 이에 본 연구는 오토 쿠티르로 시작하여

디자이너 브랜드 중 최초로 프레타포르테(Prêt-à-porter)를 런칭했으며, 현대 여성 패션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생 로랑 하우스(Saint Laurent House)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과 후대 수석 디자이너인 톰 포드(Tom Ford), 스테파노 필라티(Stefano Pilati), 에디 슬리먼(Hedi Slimane)의 디자인 비교분석을 통해 생 로랑 하우스의 디자인 정체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 로랑 패션 하우스의 역사와 오리진널 시그니처 룩을 살펴본다. 둘째, 생 로랑 하우스 수석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을 분석한다. 셋째, 생 로랑의 수석 디자이너들의 디자인을 비교분석하여 하우스의 디자인 정체성을 밝힌다.

연구 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생 로랑 패션 하우스의 역사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서적과 논문을 중심으로 문헌 연구를 하였다. 그리고 생 로랑 하우스 역대 수석 디자이너의 컬렉션 사진을 수집하여 디자인 특성을 분석, 비교하였다. 관련된 패션 매체의 평가가 있으면 참고하였다. 컬렉션 범위는 이브 생 로랑 하우스 개점 초기인 1962 SS부터 2014 SS까지이다. 이브 생 로랑의 컬렉션은 1962 SS-2002 SS 오토 쿠티르 사진자료가 대상이다. 컬렉션 전체 자료를 찾기 힘든 시점은 관련 서적과 패션 전문 사이트를 중심으로 사진을 수집하였으며⁸⁾, 그 외의 시기는 www.firstview.com을 이용하였다. 후대 수석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은 프레타포르테를 대상으로 이브 생 로랑 은퇴 후인 2002 FW부터 분석하였다.⁹⁾ 자료는 www.style.com을 이용하였으며, 시기는 톰 포드 2002 FW-2004 FW, 스테파노 필라티 2005 SS-2012 FW, 에디 슬리먼 2013 SS-2014 SS이다. 사진은 디자인과 디테일을 잘 볼 수 있는 앞모습 전신 샷 중심으로, 연구자가 선정하였다.

II. 생 로랑 패션 하우스의 역사와 시그니처 룩

1. 생 로랑 패션 하우스의 역사

1) 패션 하우스의 정의

‘패션 하우스’란 용어의 정확한 사전적 정의는 없지만 대체로 오트 쿠튀르 사업체를 메종(Maison)이라 언급한 데에서 시작된 것으로 본다.¹⁰⁾ 정정희는 연구에서¹¹⁾ ‘패션 하우스란 프랑스 오트 쿠튀르에 속해있는 쿠튀르 하우스부터 시작하여 향수, 프레타포르테, 패션 잡화 등으로 라인이 확대되어 현재까지 명품으로서의 가치와 명성을 유지해 온 럭셔리 패션 브랜드’라고 하였다. 패션 기사나 컬렉션 리뷰 등에서는 오트 쿠튀르를 진행하지 않는 럭셔리 패션 브랜드를 패션 하우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 하우스를 쿠튀르 하우스에서 시작하여 이를 유지하거나, 오트 쿠튀르는 없어졌지만 그 전통을 이어받아 독창적인 디자인, 최상의 품질, 엄격한 장인 정신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럭셔리 패션 브랜드로 정의하였다.

2) 생 로랑 패션 하우스의 역사

이브 생 로랑은 1961년 피에르 베르제(Pierre Bergé)와 함께 파리에서 자신의 하우스를 창립하였다. 이때 YSL 오리지널 로고는 <Fig. 1>¹²⁾과 같다. 이브 생 로랑은 1962년 첫 번째 패션쇼로 ‘샤넬 이후 최고의 디자이너’란 호평을 받았다.¹³⁾ 이후에도 그는 팝아트 드레스나 스모킹 등 화제가 되는 아이템들을 차례로 디자인 하였다.

1960년대에 기성복의 영향력이 커지자 이브 생 로랑은 쿠튀르 디자이너 중 처음으로 프레타포르테를 개점하여 1966년 파리에 생 로랑 리브고슈(Rive Gauche) 점포가 생겼다. 그는 남성용 향수를 위한 누드 포스터, 1977년 출시한 여성 향수 ‘오피움(Opium)’을 비롯하여, 최초로 패션쇼에 흑인 모델을 세우는 등 많은 스캔들을 만들었다.¹⁴⁾ 1983년에는 그의 예술성이 인정받아 살아있는 디자이너 중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이브 생 로랑.

디자인 25년’ 전시회가 열렸다. 또한 그는 Légion d'Honneur 훈장과 최고 쿠튀리에 오스카 상을 받았다. 이후 이브 생 로랑 하우스는 그의 마약, 알콜 중독과 1990년대 초 걸프전(Gulf War) 등의 영향으로 인한 고급 사치품 산업의 위기로 1993년 제약회사 Elf Sanofi와 합병을 발표하였다.¹⁵⁾ 1997년에는 알바 엘버즈(Alber Elbaz), 에디 슬리먼과 각각 여성, 남성 프레타포르테를 계약했다. 1999년에 PPR 그룹이 생 로랑 리브고슈를 인수하였고 2000년에 톰 포드를 고용했다.¹⁶⁾

이브 생 로랑은 거대 기업에 휘둘려 예술적이고 아름답기보다는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디자인을 추구하는 패션계에 환멸을 느껴 2002년 은퇴를 선언하였고, 오트 쿠튀르는 폐쇄되고 프레타포르테만 남았다.¹⁷⁾ 2004년에 스테파노 필라티가 수석 디자이너가 되어 하우스를 럭셔리 브랜드로 안정시켰으나¹⁸⁾ 2012 FW 컬렉션 뒤 사임하였다. 뒤를 이은 에디 슬리먼은 브랜드명을 ‘Saint Laurent Paris’로 바꾸고 오리지널 YSL로고를 제외한 전반적인 느낌을 바꾸면서 1960년대 생 로랑이 보여준 것과 같은 개혁을 준비하였다.¹⁹⁾

2. 이브 생 로랑의 시그니처 룩

이브 생 로랑은 많은 획기적인 의상들을 선보였으며, 이는 생 로랑 하우스의 대표 시그니처(signature) 룩이 되었다. 이브 생 로랑은 이 시그니처 룩을 본인 재직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 로랑 하우스 시그니처 룩으로 피코트(pea coat), 루즈 핏(loose fit)/보우(bow) 블라우스, 팬츠 수트/스모킹(smoking), 사파리(safari), 점프수트(jumpsuit), 에스닉 룩(ethnic look)과 아트 룩(art look)을 선정하였다. 선정은 패션저술가 파리드 세논(Chenoune, Farid)이 이브 생 로랑의 에센셜(essential) 디자인으로 소개한 아이템들을 참고하되²⁰⁾ 생 로랑 컬렉션에 많이 나온 보우 블라우스를 포함시켰고 팬츠 수트와 스모킹을 같이 정리하였다. 또한 선행연구²¹⁾에서 이브 생 로랑 오트 쿠튀르의 특성으로 1970년대 레트로와 에스닉 판타지룩, 1980년대 아트 룩에 대한 오마주를 든 것을 참고하여 에스닉 룩과

아트 룩을 추가하였다.

1) 피코트

피코트는 해군의 선원용 코트로 사용된, 더블 단추에 힘을 덮는 길이의 두꺼운 코트이다. 앞섶은 양쪽 방향으로 여밀 수 있으며 바다 바람을 막기 위한 큰 칼라가 있고, 수직 방향의 머프 포켓이 있다.²²⁾ 이브 생 로랑은 1962년 첫 컬렉션부터 <Fig. 2>²³⁾ 같이 네 이비 컬러 울 소재 피코트에 흰색 산통 티셔츠, 여유 있는 팬츠를 매치하여 데이 룩을 제시했다. 이와 같

이 세련된 고급 여성복으로 거듭난 피코트는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났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죽 소재의 사용 등 더 과감하고 다양하게 변형되었다.

2) 루즈 핏 블라우스 / 보우 블라우스

이브 생 로랑은 1962 FW 컬렉션에서 처음으로 새틴 소재로 된, 요크 아래에 개더를 준 스모크(smock) 형태 루즈 핏 블라우스 <Fig. 3>²⁴⁾을 디자인했고, 늘어진 보우가 달린 블라우스와 함께 지속적으로 제시했다. <Fig. 4>²⁵⁾는 1968 SS에 선보인 보우 블라우스

<Fig. 1>
original YSL logo
- Yves Saint Laurent
(2010) p. 50

<Fig. 2>
1962 SS
- Yves Saint Laurent
(2010) p. 343

<Fig. 3>
1962 FW
- Yves Saint Laurent
(2010) p. 344

<Fig. 4>
1968 SS
- Yves Saint
Laurent (1993) p. 72

<Fig. 5>
1966 FW
- www.fondation-pb-ysl.
net/fr/Couture-376.html

<Fig. 6>
1967 SS
- Yves Saint Laurent
Style(2008) p. 56

<Fig. 7>
1968 SS
- Yves Saint Laurent
Style(2008) p. 65

<Fig. 8>
1968 SS
- www.fondation-pb-ysl.
net/fr/Couture-376.htm

<Fig. 9>
1975 SS
- Yves Saint
Laurent(2010) p. 347

<Fig. 10>
1967 SS
- Yves Saint
Laurent(2002) p. 36

이다. 비치는 원단으로 된 이 블라우스는 큰 이슈가 되며 ‘시스루(see-through) 블라우스’라고 불리었다.²⁶⁾ 루즈 핏 블라우스는 포멀한 블라우스뿐만 아니라 패전트(peasant) 블라우스나 아트 룩으로도 활용되었다.

3) 팬츠 수트 / 스모킹

팬츠 수트와 스모킹은 가장 대표가 되는 시그니처 룩이다. 스모킹은 텍시도의 프랑스어로, 남성이 사교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며 입을 수 있는 준 예장 옷에서 이름이 붙여졌다. 특징은 새틴 솔칼라와 랩 형식 벨트가 있는 것이다.²⁷⁾ 이브 생 로랑은 남성만의 공식 복장이던 스모킹과 팬츠 수트를 여성용으로 바꾸어 남성성과 여성성을 가진 혁명적인 아이템으로 만들었다.²⁸⁾ <Fig. 5>²⁹⁾는 1966 FW ‘Pop Art and First Smoking’ 컬렉션의 스모킹으로 스트레이트 팬츠, 프릴 장식 보우 타이 블라우스와 매치되었다. 1967 SS의 <Fig. 6>³⁰⁾과 같은 팬츠 수트는 유니섹스 풍조와 여성 해방 운동의 흐름을 타고 여성복식의 혁명을 일으켰고, 여성 파워를 드러내는 새로운 장르가 되어 1970년대에 많은 여성들이 입게 되었다.³¹⁾ 팬츠 수트와 스모킹은 되풀이 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해 변형되었다. 특히 스모킹은 시그니처 룩과 병합하여 점프수트 스모킹, 사파리 스모킹, 피 자켓(pea jacket) 스모킹이나 케이프 스모킹, 다양한 버전의 드레스 등으로 변형되었다.

4) 사파리

사파리 자켓은 아프리카에서 사냥이나 여행에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로 실용적 소재의 평직 물로 된, 4개의 포켓과 벨트가 있는 셔츠 자켓이다.³²⁾ <Fig. 7>³³⁾은 1968 SS 컬렉션에 처음 등장한 사파리룩으로 면 개버딘 소재의 레이스 업 여밈 상의에 버뮤다 반바지와 금속 링 벨트의 앙상블이다.³⁴⁾ 이는 “세상은 이 옷을 기다려왔다”는 호평을 들었으며³⁵⁾ 남성적, 여성적 매력의 모호한 경계에 있는 아이템으로 이브 생 로랑의 시그니처 룩이 되었고 이후 단추가 달린 사파리 자켓의 수트와 스커트 수트로도 변형되었다.

5) 점프수트

점프수트는 원래 낙하산 부대원과 비행사가 착용하던 작업복 같은 제품이었으나 1960년대 후반부터 여성복에 도입된 옷으로 상의와 팬츠가 이어져 있는 형태이다.³⁶⁾ <Fig. 8>³⁷⁾은 1968 SS 컬렉션에 나온 최초의 점프수트로, 언론은 페미닌한 ‘숏츠 점프수트’ 혁신에 찬사를 보냈다.³⁸⁾ 이후 점프수트는 드로우 스트링 점프수트, 스모킹 버전 점프수트 등 다양하게 변형되었다. <Fig. 9>³⁹⁾는 1975 SS 컬렉션의 개버딘 점프수트이다.

6) 에스닉 룩

에스닉 룩은 특정한 나라의 민족 고유 복장을 의미하였으나, 민속복에서 힌트를 얻은 복장을 말하기도 한다.⁴⁰⁾ 이브 생 로랑은 지속적으로 직접 여행한 모로코와 상상으로 그려낸 아프리카, 러시아, 스페인, 인도, 중국, 일본 등 다양한 나라의 민속적 느낌을 표현하였다. 예로 1967 SS 컬렉션에서는 <Fig. 10>⁴¹⁾처럼 아프리카의 원시적인 느낌에 비교적 저렴한 소재인 나무, 유리구슬 등으로 자수를 넣어 오트 쿠튀르의 관습을 뒤엎었다.⁴²⁾ <Fig. 11>⁴³⁾은 1969 FW 컬렉션의 이브닝 앙상블이다. 긴 홈스펀 케이프, 조젯 크레이프 드레스, 가죽 벨트의 매치로 에스닉 룩을 표현하였다⁴⁴⁾. <Fig. 12>⁴⁵⁾는 1977 FW 컬렉션의 이브닝 앙상블로 마오 칼라, 매듭단추를 단 누빔 원단 블랙 자켓, 술 장식과 중국식 모자로 중국풍을 강조하였다.

7) 아트 룩

이브 생 로랑은 예술가나 예술 작품에서 영감을 받거나, 예술가와의 협업을 통해 의상을 만들면서⁴⁶⁾ 예술과 패션을 결합시켰다. 1965 FW 컬렉션의 몬드리안 드레스 <Fig. 13>⁴⁷⁾을 비롯하여 1966 FW 컬렉션에서는 <Fig. 14>⁴⁸⁾처럼 팝 아티스트에게 영감을 받은 드레스를 디자인하였고⁴⁹⁾ 1971 SS에서는 초현실주의 작가가 1929년 제 2차 선언문에 묘사한 입술 모티브를 시퀀스로 장식하여 <Fig. 15>⁵⁰⁾의 ‘립 코트’를 제작했다.⁵¹⁾ 그 외에도 1979 FW 피카소(Picasso)와 디아길레프(Diaghilev)에 대한 오마주 컬렉션,

〈Fig. 11〉
1969 FW
- Yves Saint
Laurent Style(2008)
p. 98

〈Fig. 12〉
1977 FW
- Yves Saint
Laurent(2010) p. 358

〈Fig. 13〉
1965 FW
- Yves Saint Laurent
(2002) p. 31

〈Fig. 14〉
1966 FW
- <http://www.fondation-pb-ysl.net/en/Couture-376.html>

〈Fig. 15〉
1971 SS
- Yves Saint
Laurent(2010)
p. 353

〈Fig. 16〉
2002 FW
- firstview.com

〈Fig. 17〉
2002 FW
- firstview.com

〈Fig. 18〉
2003 SS
- firstview.com

〈Fig. 19〉
2003 SS
- firstview.com

〈Fig. 20〉
2003 FW
- firstview.com

1980 FW 초현실주의 작가들에 대한 오마주 컬렉션, 1981 FW 마티스(Matisse) 오마주 컬렉션 등 이브 생 로랑은 신조형주의, 팝아트, 초현실주의, 입체주의, 야수주의, 후기 인상주의의 예술가들과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작품의 모티브를 의상에 적용하거나 그림 속 의상을 재현하여 표현하였다.

3. 하우스 후대 수석 디자이너의 컬렉션 고찰

1) 톰 포드(2002 FW-2004 FW)

톰 포드는 팬츠 슈트와 스모킹을 비롯하여 이브

생 로랑의 테마와 시그니처 룩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상업성을 중시하면서 자신의 스타일인 관능적이며 섹시한 이미지의 현대여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예로 'adult-erotic frame of mind'란 평을 들은 2002 FW컬렉션은 18세기 풍 의상을 응용하고 어두운 색상, 보우 디테일, 섬세한 레이스의 사용으로 도발적이고 섹시한 느낌을 주었다.⁵²⁾ 〈Fig. 16〉⁵³⁾은 노출이 많고 몸에 밀착된 레이스 블라우스, 〈Fig. 17〉⁵⁴⁾은 18세기 풍 소매가 달린 루즈 핏 블라우스이다.

'글램'을 표현한 2003 SS 컬렉션에는 〈Fig. 18〉⁵⁵⁾처럼 니플 포인트를 강조하여 성적 매력을 노골적으

로 보이면서도 우아한 의상들을 제시했다.⁵⁶⁾ 또한 <Fig. 19>⁵⁷⁾처럼 가슴부분에 트롱프뢰유(trompe-l'œil) 기법을 응용하여 예술적 감성을 표현했다.

2003 FW 컬렉션은 가수 다이애나 로스(Diana Ross)를 영감으로 하여 1970년대의 섹시하고 현란한 룩을 재현하였다. <Fig. 20>⁵⁸⁾과 <Fig. 21>⁵⁹⁾을 비롯하여 컬러풀한 주름장식 드레스, 그물 스타킹, 가죽 스키니 팬츠, 레이스 란제리, 벨벳 자켓, 모피 등 정제되지 않은 관능미를 선보였다.⁶⁰⁾ 2004 SS 컬렉션은 남성복과 여성복 조화의 스타일리시한 룩을 제시하면서 <Fig. 22>⁶¹⁾처럼 세련된 관능미, 헐리웃 글래머러스를 표현하였다.⁶²⁾ <Fig. 23>⁶³⁾의 피코트도 가죽 소재로 타이트하고 섹시했다.

마지막 2004 FW 컬렉션에 톰 포드는 1977년 오프 품 향수 런칭 때 열린 이브 생 로랑의 중국풍 컬렉션을 테마로 선택했다. <Fig. 24>⁶⁴⁾는 중국복식의 여미를 응용한 상반신이 비치는 원피스, <Fig. 25>⁶⁵⁾는 화려하고 도발적인 중국풍 드레스이다.

2) 스테파노 필라티(2005 SS-2012 FW)

스테파노 필라티는 이브 생 로랑의 혁신성을 이어받아 소재 전문가로서의 본인 경험을 살려 새로운 소재의 응용, 새로운 재단 기법과 테일러링을 제시하였다. 그는 이브 생 로랑의 테마나 시그니처 룩을 다수 재해석하였는데 화려한 색상은 많이 사용하지 않았지만 대체로 우아하고 세련되고 시크한 여성을 표

<Fig. 21>
2003 FW
- firstview.com

<Fig. 22>
2004 SS
- firstview.com

<Fig. 23>
2004 SS
- firstview.com

<Fig. 24>
2004 FW
- firstview.com

<Fig. 25>
2004 FW
- firstview.com

<Fig. 26 >
2005 SS
- www.style.com

<Fig. 27>
2005 FW
- www.style.com

<Fig. 28>
2006 SS
- www.style.com

<Fig. 29>
2007 FW
- www.style.com

<Fig. 30>
2007 FW
- www.style.com

현하였다.

데뷔 컬렉션인 2005 SS에 필라티는 힘을 부풀리고, 허리를 조이는 넓은 벨트, 플라멩코를 연상시키는 러플장식과 새로운 프로포션으로 하우스의 전통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디자인을 제시했다.⁶⁶⁾ 〈Fig. 26〉⁶⁷⁾ 처럼 하우스 시그니처 사파리룩의 응용들도 있었다. 수녀와 성직자의 17세기 회화를 테마로 한 2005 FW 컬렉션에서는 종교적 분위기 의상과 함께 〈Fig. 27〉⁶⁸⁾의 가슴부위를 하트 모양으로 파낸 원피스가 팝아트 같고 세속적인 이미지를 보였다. 이브 생 로랑의 스페니쉬(Spanish) 컬렉션과 피카소에게서 영감을 얻어 ‘누보 프렌치(Nouveau French)’를 표현한 2006 SS 컬렉션은 섬세한 컬러, 프린, 풍풍 디테일과 날카로운 재단을 조화시켰다.⁶⁹⁾ 〈Fig. 28〉⁷⁰⁾

은 스페인풍 드레스이다. 2007 FW 컬렉션은 단순함 속에서 형태와 라인을 연구하면서 소재를 재치 있게 표현했다. 예로 악어가죽 텍스처를 실크로, 모피를 〈Fig. 29〉⁷¹⁾처럼 모슬린 조각으로 표현해 럭셔리 소재의 의미만 차용했다.⁷²⁾ 〈Fig. 30〉⁷³⁾은 턱시도를 응용한 원피스이다. 미니멀과 우아함을 표현한 2008 SS 컬렉션에서는 〈Fig. 31〉⁷⁴⁾ 같은 별 모티브를 이용한 의상이 이브 생 로랑이 1970 FW, 1989 SS 컬렉션에 사용한 팝아트 별 모티브를 연상시켰다. 2008 FW 컬렉션에서 필라티는 〈Fig. 32〉⁷⁵⁾처럼 기하학적인 재단으로 낮은 볼륨감과 로봇 같은 이미지를 표현하였다.⁷⁶⁾

2009 SS 컬렉션은 여성스러움, 단순함, 일본풍의 엄숙함을 혼합하였다. 〈Fig. 33〉⁷⁷⁾의 사파리 자켓처

〈Fig. 31〉
2008 SS
- www.style.com

〈Fig. 32〉
2008 FW
- www.style.com

〈Fig. 33〉
2009 SS
- www.style.com

〈Fig. 34〉
2009 FW
- www.style.com

〈Fig. 35〉
2009 FW
- www.style.com

〈Fig. 36〉
2010 SS
- www.style.com

〈Fig. 37〉
2010 FW
- www.style.com

〈Fig. 38〉
2011 SS
- www.style.com

럼 기모노나 일본 어부의 바지 같은 형태 응용과, 파리지엔 시크를 보여주는 팬츠 수트 등도 제시되었다.⁷⁸⁾ 2009 FW는 모터 싸이클 자켓, 자동차에서 영감을 받은 몰딩 처리 소재, 가죽 트렌치코트, <Fig. 34>⁷⁹⁾의 가죽 점프수트 등과 <Fig. 35>⁸⁰⁾처럼 부풀린 보우 블라우스, 플란넬 자켓과 우아한 팬츠 등으로 슈퍼 시크 프렌치니스(Frenchness)를 표현했다.⁸¹⁾ 2010 SS 컬렉션은 실용주의적 시크의 절제된 라인에 여성성을 위해 화려함과 에로티시즘을 공존시켰는데, 이브 생 로랑의 작품에 뿌리를 둔 스모킹과 딸기 모터브 드레스 <Fig. 36>⁸²⁾도 등장했다.⁸³⁾ 2010 FW 컬렉션에는 PVC 필름을 레이어링하거나, 수녀를 연상시키는 흑백 컬러와 베일, 케이프의 사용이 많았다. <Fig. 37>⁸⁴⁾은 하이웨이스트 플레어 팬츠와 케이프를 응용한 루즈 핏 블라우스 이다.

2011 SS 컬렉션은 1970년대 이브 생 로랑을 테마로 하여 기본 아이템은 엄격했으며 큰 러플 장식, 스모킹과 점프수트의 다양한 변형은 시크했다.⁸⁵⁾ <Fig. 38>⁸⁶⁾은 피코트 원피스 이다. 2011 FW 컬렉션은 레트로 감성으로 이브 생 로랑의 유산을 재해석하였는데 남성복 소재를 사용한 아이템들과 <Fig. 39>⁸⁷⁾의 점프수트, 원피스, 스모킹은 우아하고, 시크하고, 섹시했다.⁸⁸⁾ 2012 SS 컬렉션은 미니멀한 의상에 에스닉 장식 벨트, 금 장식 신발, 다양한 색상의 의상을 제시했다. <Fig. 40>⁸⁹⁾은 에스닉 프린트 드레스이다.

2012 FW에서는 <Fig. 41>⁹⁰⁾처럼 꼭 조인 허리와 넓은 어깨, 페티시적인 느낌, 가죽과 메탈 소재, 단정한 머리와 뱀파이어 같은 강한 입술로 성적 패션 판타지를 표현했다.⁹¹⁾

3) 에디 슬리먼(2013 SS-2014 SS)

에디 슬리먼은 수석 디자이너가 된 뒤 <Fig. 42>⁹²⁾처럼 브랜드 이름과 로고의 폰트 등 하우스의 전반적인 느낌을 생 로랑 리브고슈가 탄생되었을 당시처럼 돌아가고자 개혁하였고, 자신의 디자인 감성인 스킨니(skinny)스타일과 락(rock) 감성을 접목시켰다.

1970년대 감성과 웨스턴 룩을 모던하게 재해석한 2013 SS 컬렉션⁹³⁾은 로큰롤 감성이 더해지면서도 이브 생 로랑의 유산에 충실했다. <Fig. 43>⁹⁴⁾, <Fig. 44>⁹⁵⁾, <Fig. 45>⁹⁶⁾는 이브 생 로랑의 오리지널 보우 블라우스와 팬츠 수트, 사파리 자켓, 에스닉 룩의 재해석이다. 사파리 자켓은 스웨이드 소재 롱 드레스로 히피 요소를, 에스닉 룩은 가슴부위의 노출로 섹시함을 가미했다. 2013 FW는 LA 그런지(grunge) 스타일과 펑크 요소가 강한 컬렉션으로 논란이 되었다. <Fig. 46>⁹⁷⁾은 그런지 풍 모피 케이프를 원피스에 매치하였고 <Fig. 47>⁹⁸⁾은 가죽 허리벨트를 여러 개 연결한 것 같은 스커트와 짧은 탑 스타일로 락 요소를 강조했다. 한편으로는 시스루 원피스와 매치한 피코트 <Fig. 48>⁹⁹⁾처럼 하우스의 시그니처 룩을 활용하

<Fig. 39>
2011 FW
- www.style.com

<Fig. 40>
2012 SS
- www.style.com

<Fig. 41>
2012 FW
- www.style.com

SAINT LAURENT
PARIS

<Fig. 42>
new logo
- http://www.ysl.comkr

〈Fig. 43〉
2013 SS
- www.style.com

〈Fig. 44〉
2013 SS
- www.style.com

〈Fig. 45〉
2013 SS
- www.style.com

〈Fig. 46〉
2013 FW
- www.style.com

〈Fig. 47〉
2013 FW
- www.style.com

〈Fig. 48〉
2013 FW
- www.style.com

〈Fig. 49〉
2014 SS
- www.style.com

〈Fig. 50〉
2014 SS
- www.style.com

〈Fig. 51〉
2014 SS
- www.style.com

〈Fig. 52〉
2014 SS
- www.style.com

기도 했다. 2014 SS 컬렉션은 이브 생 로랑의 시그니처와 모티브 등에 핑크 요소를 더해 젊은 이미지를 더했다. 넉넉한 어깨, 박시 자켓, 일본풍 의상, 핑키스타일, 원 숄더 톱 등으로 LA 기반의 프렌치 룩을 제시했다.¹⁰⁰⁾ 〈Fig. 49〉¹⁰¹⁾는 앞부분이 깊게 노출된 스키니 스모킹 점프수트이고, 〈Fig. 50〉¹⁰²⁾은 시그니처 팬츠 수트이다. 〈Fig. 51〉¹⁰³⁾ 텍시도 자켓은 일본 갑옷 같고 〈Fig. 52〉¹⁰⁴⁾는 초현실주의에 영향 받은 이브 생 로랑의 70년대 ‘립(lip) 코트’를 연상시킨다.

Ⅲ. 생 로랑 하우스 디자이너의 디자인 특성 비교

이 장에서는 생 로랑 하우스 디자이너들의 디자인 특성 비교를 하우스 시그니처 룩을 중심으로 하여 이것이 디자이너에 따라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살펴해보았다.

1. 이브 생 로랑의 디자인 특성

이브 생 로랑은 1962 SS-2002 SS까지 많은 대표 룩을 선보였다. 그의 시그니처 룩의 대부분은 1960년대에 처음 등장하여, 이후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

〈Table 1〉 The Signature Looks in YSL Collections by Yves Saint Laurent

YSL	peacoat	loose fit/bow blouse	smoking/pantsuit	safari	jumpsuit	ethnic look	art look
1995 FW	V	V	V	V		V	
1996 SS			V	V		V	
1996 FW	V	V	V			V	
1997 FW		V	V		V		V
1998 SS		V	V			V	
1998 FW	V	V	V		V	V	
1999 SS		V	V	V			
1999 FW		V	V			V	V
2000 SS		V	V	V		V	
2000 FW		V	V		V	V	V
2001 SS	V	V	V			V	V
2001 FW		V	V			V	V
2002 SS	V	V	V	V	V	V	V

루즈 핏/보우 블라우스, 팬츠 수트/스모킹, 에스닉 룩의 경우 거의 모든 시즌에 등장했다. 컬렉션 사진이 있는 1995 FW - 2002 SS 컬렉션에 나타난 시그니처 룩의 유무는 〈Table 1〉과 같다.

이브 생 로랑은 프랑스 쿠티르의 클래식, 화려함, 고급스럽고 완벽한 재단을 통해 모던하면서도 우아한 의상을 창조했다. 따라서 그의 디자인 특성은 쿠티르의 전통과 혁신성의 조화라는 상반성을 내포하며 구체적으로는 성의 해방, 이국적 감성, 예술성 측면에서 논의 할 수 있다. 이브 생 로랑의 디자인 특

성을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2. 톰 포드의 디자인 특성

톰 포드는 'Woman in Dandy'나 중국풍 등 이브 생 로랑의 테마를 다루기도 하였지만 이브 생 로랑의 시크하면서 우아한 감정보다는 자신의 '섹시' 코드를 중심으로 디자인하였다. 그는 하우스 시그니처 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지만, 팬츠 수트와 스모킹은 상징적인 의미로 매 시즌마다 적은 수라도

〈Table 2〉 Design Features of Yves Saint Laurent's Collections

couture tradition		+	innovativeness	
· strictness, perfection · elegance, classic			· originality · free spirit	
contrast				
▼		▼	▼	
expression of woman		expression of exotic feeling		expression of art
· liberation of sex · endow women with political, social power · women of confidence		· combine by imagination · multicultural thinking		· art and fashion interchange · homage to art

〈Table 3〉 The Signature Looks in YSL Collections by Tom Ford

Tom Ford	peacoat	loose fit/bow blouse	smoking/pantsuit	safari	jumpsuit	ethnic look	art look
2002 FW		V	V				
2003 SS			V				V
2003 FW		V	V				
2004 SS	V		V				
2004 FW			V			V	

등장시켰다. 사파리 룩과 점프수트는 볼 수 없었다. 피코트와 아트 룩은 소수 있었으며, 에스닉 룩은 한 컬렉션에서 다수 등장하였다. 톰 포드의 컬렉션에 나타난 하우스 시그니처 룩의 유무는 〈Table 3〉과 같다.

톰 포드의 컬렉션에 대한 패션매체의 ‘adult erotic’, ‘glam’, ‘70년대’라는 비평처럼 그는 여성성을 극대화시켜 관능적으로 부각시킴으로서 당당한 현대여성, 성의 해방을 표현하였다. 이브 생 로랑과 톰 포드 모두 현대의 여성상을 표현했지만 이브 생 로랑은 오트 쿠튀르를 기초로 예술적인 의상에 중점을 두었고, 톰 포드는 프레타포르테를 고급화시키며 상업적인 의상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트렌디하고 섹시한 스타일이 주를 이루었다.

톰 포드의 디자인 특성을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그는 하우스 아카이브보다는 자신의 디자인 감성인 관능적 매력을 강조하였고, 이국적 감성 표현이

나 예술성 표현보다 대중성을 가미한 섹시하고 당당한 현대 여성을 그려 여성성 표현에 집중하였다.

3. 스테파노 필라티의 디자인 특성

스테파노 필라티는 이브 생 로랑의 스타일과 시그니처 룩을 비교적 많이 활용하였다. 그는 루즈 핏/보우 블라우스, 팬츠수트/스모킹을 가장 많이 활용하여, 매 시즌 몇 벌씩 등장시켰다. 점프수트와 에스닉 룩, 아트 룩도 꾸준히 선보였고 소수이지만 피코트와 사파리도 활용하였다. 그의 컬렉션에서 나타난 시그니처 룩의 유무는 〈Table 5〉와 같다.

필라티는 소재와 패턴에 독창적인 방법을 시도하여 시크한 룩을 제시했다. 그는 생 로랑의 아카이브를 존중했으며 파리 전통 스타일과 60-70년대 이브 생 로랑 스타일, 스페인 등 이브 생 로랑의 테마와

〈Table 4〉 Design Features of Tom Ford's Collections for Saint Laurent House

〈Table 5〉 The Signature Looks in YSL Collections by Stefano Pilati

Stefano Pilati	peacoat	loose fit/bow blouse	smoking/pantsuit	safari	jumpsuit	ethnic look	art look
2005 SS		V	V	V			V
2005 FW		V	V				
2006 SS		V	V			V	V
2006 FW		V	V			V	
2007 SS		V	V		V	V	V
2007 FW	V	V	V		V		V
2008 SS		V	V		V		V
2008 FW		V	V				
2009 SS		V	V	V	V	V	
2009 FW		V	V		V	V	
2010 SS		V	V		V		V
2010 FW		V	V		V		
2011 SS	V	V	V		V		
2011 FW		V	V		V		
2012 SS		V	V		V	V	
2012 FW			V		V		

스타일을 재해석하거나, 종교적 무드나 새로운 볼륨감 등 새로운 테마를 고루 사용하였다. 스테파노 펠라티의 생 로랑 컬렉션 디자인의 특성을 정리하면 〈Table 6〉과 같다. 그는 하우스 아카이브와 자신의

디자인 특성을 잘 조화시켰으며, 또한 여성 표현, 이국적 감성 표현, 예술성 표현을 적절히 조화시켜 디자인하였다.

〈Table 6〉 Design Features of Stefano Pilati's Collections for Saint Laurent House

house tradition	+	design sensitivity of Stefano Pilati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rict cut, perfect sewing, high quality materials· house signature loo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chic· minimal, simplicity· innovativeness(experimenta materials, cutting, volume etc.)
reinterpretation of house archive≡ emphasis of Pilati's design sensitivity		
▼	▼	▼
expression of woman	expression of exotic feeling	expression of a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interpretation of house archive· women in confidence· mature, chic, elegant women· super chic wom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apply house archive· combine exotic and other themes· reinterpretation in modern w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interpretation of house archive· apply as a technique for detail

〈Table 7〉 The Signature Looks in YSL Collections by Hedi Slimane

Hedi Slimane	peacoat	loose fit/bow blouse	smoking/pantsuit	safari	jumpsuit	ethnic look	art look
2013 SS		V	V	V		V	
2013 FW	V	V					V
2014 SS			V		V	V	V

4. 에디 슬리만의 디자인 특성

에디 슬리만의 컬렉션 디자인에 대해 논란도 있었지만 그는 비교적 이브 생 로랑의 시그니처 룩을 충실히 보여주었다. 에디 슬리만의 생 로랑 컬렉션에서는 루즈 핏/ 보우 블라우스, 팬츠 수트/스모킹, 케이프, 에스닉룩이 여러 벌 등장하였고, 적지만 피코트, 사파리, 점프수트, 아트 룩도 등장하여 짧은 기간 동안 모든 시그니처 룩을 등장시켰다. 에디 슬리만의 생 로랑 컬렉션에서 나타난 시그니처 룩의 유무는 〈Table 7〉과 같다.

에디 슬리만의 첫 번째 생 로랑 컬렉션은 새로운 테마와 그의 디자인 특성이 가미되었지만 하우스의 유산에 비교적 충실하였다. 2013 FW 컬렉션은 LA 그런지와 핑크 스타일로 그 자신의 특성이 매우 강했고 시그니처 룩은 매우 적었다. 2014 SS 컬렉션은 이브 생 로랑의 시그니처와 모티브 등에 핑크 요소를 더해 한 층 젊은 이미지를 더했다.

에디 슬리만의 생 로랑 컬렉션의 특성을 정리하면 〈Table 8〉과 같다. 그는 하우스 아카이브를 재해석하면서 자신의 디자인을 강조하였고, 특히 로큰롤 감성, 극단적인 스킨 스타일로 젊고 반항적인 디자인을 하였다. 또한 이국적인 감성 표현보다는 여성 표현과 예술성 표현에 중점을 두고 디자인하였다.

IV. 생 로랑 하우스의 디자인 정체성에 대한 종합적 논의

본 연구에서는 생 로랑 하우스의 디자인 정체성을 하우스 시그니처 룩의 계승과 여성 표현, 이국적인 감성, 예술성 표현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1. 시그니처 룩

이브 생 로랑의 대표 아이템은 하우스의 시그니처 룩이 되었고, 이를 후대 디자이너들이 본인 스타일을

〈Table 8〉 Design Features of Hedi Slimane's Collections for Saint Laurent House

house tradition		+	design sensitivity of Hedi Slima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rict cut, perfect sewing, high quality materials· house signature loo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slim silhouette· Sensitivity based on LA· Rock & roll	
reinterpretation of house archive= emphasis of Slimane's design sensitivity				
▼		▼		▼
expression of woman		expression of exotic feeling		expression of a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young women· chic women· modern women in confidence· reinterpretation of subcul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interpretation of house archive· combine exotic and other themes (Rock & roll, Punk)· reinterpretation in modern w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interpretation of house archive· Rock & roll images

더해 재해석하여 지속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시그니처 룩을 이어갔다. 가장 많이 활용된 것은 팬츠 수트와 스모킹으로, 4명 디자이너 모두 거의 모든 컬렉션에 제시하여 하우스를 대표하는 아이টে으로 상징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루즈 핏/보우 블라우스, 에스닉, 아트 룩도 자주 등장하였다.

팬츠 수트와 스모킹의 경우 이브 생 로랑이 여성성과 남성성 혼합 이미지를 제시했다면, 톰 포드는 노골적인 섹시함을 강조하였다. 스테파노 필라티는 우아하고 시크한 룩을, 에디 슬리먼은 젊은 감각의 스타일을 보였다. 루즈 핏/보우 블라우스는 톰 포드를 제외한 디자이너들의 대부분 컬렉션에서 나타났다. 톰 포드의 경우는 관능성을 강조하는 타이트 블라우스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필라티는 다양한 루즈 핏/보우 블라우스를 제시했다. 에스닉 룩은 모든 디자이너들에서 나타났다. 톰 포드는 중국을 테마로 섹시한 에스닉 룩, 스테파노 필라티는 모던 에스닉 룩, 에디 슬리먼은 이브 생 로랑의 작품을 유사하게 재현하거나 일본풍을 가미하였다. 아트 룩은 이브 생 로랑이 예술에 대한 오마주, 협업 등으로 작업했다면, 톰 포드는 섹시함을 강조하는 디테일로, 필라티는 이브 생 로랑의 작품을 응용한 팝아트적 디자인이나 위트를 주는 기법으로 활용하였다. 슬리먼은 이브 생 로랑 작품의 모티브를 활용하거나 로큰롤에 영향 받은 룩을 제시했다. 톰 포드는 에스닉 룩과 아트 룩을 제일 적게 제시했다. 점프수트는 이브 생 로랑과 필라티는 자주 사용했지만, 톰 포드의 컬렉션에서는 없었다. 피코트는 적었으나 다양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사파리룩도 매우 적었는데 슬리먼은 오리지널 사파리를 유사하게 해석했다. 디자이너에 따른 생 로랑 하우스 시그니처 룩의 디자인 변화는 <Table 9>와 같다.

2. 여성 표현

이브 생 로랑은 시대흐름을 잘 읽어 사회가 원하는 것을 디자인하는 감각이 뛰어났다. 하우스 초기에, 여성해방 운동과 젊은이들의 영향력이 커지자 그는 피코트, 팬츠 수트, 스모킹, 사파리, 점프수트 등 혁신적인 의상을 여성에게 입힘으로서 남녀평등과 페

션의 진보에 기여했다. 그는 남성적 특성이 조화된 이미지, 그리고 우아하고 세련된 이미지의 디자인으로 여성의 매력을 더욱 부각시켰다.

톰 포드는 자신의 디자인 감성인 섹슈얼리티와 이브 생 로랑의 성의 해방 정신을 이어받아 여성을 표현했다. 그는 시그니처 팬츠 수트와 스모킹을 성의 해방과 하우스 상징 의미로 지속적으로 등장시켰다. 또한 그는 노골적인 노출과 성을 강조하는 디테일로 당당하면서 관능적인 여성을 표현하였고, 이를 통해 이브 생 로랑과는 다른 방향으로 성의 해방과 현대 여성을 표현하였다. 필라티 이후는 성의 해방을 강하게 주장하는 디자인이 거의 없었다. 필라티는 생 로랑의 옛 명성을 되찾고자 하우스의 전통 스타일인 우아함과 시크를 기본으로, 하우스 시그니처를 다양한 테마로 재해석하여 미니멀하면서도 우아한 여성을 표현하였다. 에디 슬리먼은 생 로랑 리브고슈의 정신으로 돌아가 젊은 현대 여성을 표현하였는데, 스키니 라인과 LA 기반의 프렌치, 로큰롤 감성을 더해 하우스의 유산과 시그니처를 비교적 충실하게 재현하면서 자신만의 젊은 현대 여성을 표현하였다.

3. 이국적 감성 표현

이브 생 로랑은 아프리카, 러시아, 모로코, 스페인, 중국, 인도, 일본 등의 강하고 다양한 에스닉 룩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는데 상상을 통해 여러 나라가 혼합된 에스닉 룩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후대 디자이너들은 이브 생 로랑의 에스닉 테마를 활용하면서, 이국적인 것에 대한 강한 관심의 표현보다 시대에 맞는 세련된 스타일로 바꾸어 표현하였다.

톰 포드는 중국풍, 스테파노 필라티는 스페인, 인도, 일본, 모로코풍을, 에디 슬리먼은 모로코, 일본풍의 디자인을 하였다. 같은 나라의 민속적인 디자인이라도 디자이너 별로 차이가 있었다. 이브 생 로랑의 에스닉 룩이 화려한 색상과 사치스러운 느낌이라면, 톰 포드는 화려하고 도발적인 색상에 타이트 실루엣으로 섹시한 느낌을 주었다. 스테파노 필라티는 대체로 화려한 색상을 자제하고 디테일과 소재로 이국적 감성을 표현하면서 모던하게 변형하여 은은한 에스닉 룩을 표현하였다. 에디 슬리먼은 이브 생 로랑의

〈Table 9〉 The Signature Looks by the Saint Laurent House Designers

	designers			
	Yves Saint Laurent	Tom Ford	Stefano Pilati	Hedi Slimane
peacoat	62 SS	04 SS	11 SS	13 FW
loose fit/bow blouse	62 FW 68 SS	02 FW	09 FW 2010 FW	13 SS
smoking/pantsuit	66 FW 67 SS	03 SS 04 SS	07 FW 12 FW	13 SS 14 SS
safari	68 SS		05 SS 09 SS	13 SS
jumpsuit	68 SS 75 SS		09 FW 11 FW	14 SS

ethnic look	69 FW 77 FW	04 FW 04 FW	06 SS 12 SS	13 SS 14 SS
art look	66 FW 71 SS	03 SS	05 FW 08 SS	13 FW 14 SS

에스닉 룩을 재현하거나 로큰롤 감성을 더해 시크하고 세련되게 제시하였다.

4. 예술성 표현

이브 생 로랑의 예술에 대한 관심은 예술적 가치를 갖는 다양한 아트 룩을 낳았고, 이는 하우스의 아카이브로 남았다. 후대 디자이너 별로 예술에 대한 표현은 달랐는데 이브 생 로랑의 의상을 재해석하거나, 본인의 디자인 감성을 살려 새로운 아트 룩을 창조하였다. 톰 포드는 상업적인 의상을 만드는데 중점

을 두었기에 강한 아트 룩이나 이브 생 로랑 작품의 응용은 없었고, 예술 기법을 디자인에 사용하였다. 스테파노 필라티는 이브 생 로랑의 팝 아트적 모티브를 이용하거나, 원단의 재질을 속이는 트롱프뢰유 기법을 사용하였다. 에디 슬리먼은 초현실주의 모티브를 사용한 이브 생 로랑의 아트 룩을 재해석하거나, 자신의 관심사인 로큰롤을 의상에 접목하여 이브 생 로랑과는 다른 아트 룩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하우스 시그니처 룩의 계승과 여성 표현, 이국적인 감성, 예술성 표현의 측면에서 살펴본 생 로랑 하우스의 디자인 정체성을 정리하면

<Table 10> The Design Identity of the Saint Laurent House

〈Table 10〉과 같다.

V. 결론

생 로랑 하우스의 디자인 정체성은 하우스 창시자 이브 생 로랑의 디자인 특성을 기반으로 한다. 그것은 시대를 반영한 혁신성, 다문화적 사고, 예술적 감성, 오프 쿠티르 전통을 계승한 우아하고 시크한 이미지이며 현대의 당당한 여성상을 그려냈다. 그의 컬렉션 테마나 시그니처 룩, 스타일은 하우스의 상징이자 아카이브로 남았다.

이러한 하우스 아카이브를 후대 수석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디자인 감성을 더하여 동시대적인 디자인으로 재해석하였다. 디자이너에 따라 자신의 디자인 특성을 더 강하게 살리거나 새로운 혁신을 제시하였으며, 하우스의 스타일에 무게를 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후대 디자이너에 의해 하우스 아카이브의 테마가 다시 사용되면서 새 스타일이 덧입혀지기도 하고, 시그니처 룩이 재현되거나 재해석, 변형된다. 그리고 후대 디자이너의 혁신성, 새로운 테마나 스타일 등이 새로운 유산으로 생겨나고 계승되면서 복합적인 요소들에 의해 생 로랑 하우스의 디자인 정체성이 형성된다.

결론적으로 생 로랑 하우스의 디자인 정체성은 이브 생 로랑의 오리지널 스타일을 후대 디자이너가 단순히 반복하는 불변의 것이 아니라, 하우스의 정신과 같은 변하지 않는, 변하면 안 되는 부분과 후대 디자이너의 특성, 시대 반영과 같이 변해야 하는 부분을 적절히 조화, 융합시켜 나가는 유동적인 것이다.

References

- Hwang, G. (2008),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Japan fashion designer brand*,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pp. 6-25.
- Lee, Y. (2010), *A study on the design of Yves Saint Laur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pp. 1-180.
- Lee, M. (1998), *A Study on the Fashion Design based on Chanel sty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pp. 1-172.
- Kwak, H. (2009), *A study on the fashion design of Balenciag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pp. 1-148.
- Jung, J. (2009), *Identity of fashion house design*,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pp. 1-87.
- Jung, J. & Ko, H. (2009), The Study on the Design Identity of Dior Fashion Hous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9(6), pp.126-139.
- Kong, M. & Chae, K. (2003), Design Originality of Christian Dior's Haute Coutur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3(2), pp. 57-70.
- www.fondation-pb-ysl.net; www.metmuseum.org; Ism Institute of Fashion Industry (1993), *Yves Saint Laurent*, Seoul: Ism; Bergé, Pierre(2002), *Yves Saint Laurent*, Park, K., Busan: Norano; Chenoune, F. & Muller, F. (2010), *Yves Saint Laurent*, New York: Abrams; Foundation Pierre Bergé-Yves Saint Laurent (2008), *Yves Saint Laurent Style*, New York: Abrams
- This research excluded Alba Elbaz's pret-a-porter works for the house in the periods of 1999 FW-2000 FW, and also Tom Ford's collections for the house before 2002 FW.
- Lehnert, Gertrud (2005), *Fashion*, Park, S., Seoul: Yekyong, p. 172.
- Jung, J., *op. cit.*, pp. 5-8.
- Chenoune, F. & Muller, F. *op.cit.*, p. 50.
- Benaim, Laurence (1994), Min, H. & Oh, J., Yves Saint Laurent (I), Seoul: Fortex, pp. 248-253.
- Kang, M. (2011), *The Birth of Fashion*, Seoul: Rubybox Publishers Co., pp. 205-207.
- Benaim, Laurence (1994), Min, H. & Oh, J., Yves Saint Laurent (II), Seoul: Fortex, pp. 407-410.
- retrieved 2013, Sep. 23, from <http://www.fondation-pb-ysl.net/en/History-217.html#>
- Kang, M. *op. cit.*, pp. 209-210.
- Lee, H. "Idol of chic gentlemen, Stefano Pilati", retrieved 2013, Aug. 8, 18, from http://www.style.co.kr/toon/toon_view.asp?menu_id=01160500&c_idx=011406000000002
- Kim, H. "Here come strong things... 2013 all new style", retrieved 2013, Sep. 10, from <http://news.donga.com/3/all/20130131/52727222/1>
- Chenoune, F. & Muller, F., *op. cit.*, pp. 125-155. Introduced items such as peacoat, loosefit blouse, smoking, pants & skirt suit, safari jacket, jumpsuit.
- Lee, Y. *op. cit.*, pp. 45-59.
- Korea Dictionary Research Publishing (1997), *Fashion Reference Dictionary*, Seoul: Korea Dictionary Research Publishing, p. 1469.
- Chenoune, F. & Muller, F., *op. cit.*, p. 343.
- Ibid.*, p. 344.
- Ism Institute of Fashion Industry, *op. cit.*, p. 72.
- Chenoune, F. & Muller, F., *op. cit.*, p. 138.
- Korea Dictionary Research Publishing, *op. cit.*, p. 679.
- Lee, M. "Yves Saint Laurent's Le Smoking and Pantsuit", retrieved 2013, Sep. 17, from <http://naver>

- rcast.naver.com/contents.nhn?rid=135&contents__id=7073&leafId=135
- 29) retrieved 2013. Sep. 26, from www.fondation-pb-ysl.net/fr/Couture-376.html
 - 30) Foundation Pierre Bergé - Yves Saint Laurent, *op. cit.*, p. 56.
 - 31) Lee, M. "Yves Saint Laurent's Le Smoking and Pantsuit", retrieved 2013. Sep. 17, from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35&contents__id=7073&leafId=135
 - 32) Korea Dictionary Research Publishing, *op. cit.*, p. 566.; retrieved 2013. Sep. 26,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715061&cid=4342&categoryId=4342>
 - 33) Foundation Pierre Bergé - Yves Saint Laurent, *op. cit.*, p. 65.
 - 34) *Ibid.*, p. 65.
 - 35) Ism Institute of Fashion Industry, *op. cit.*, p. 75.
 - 36) Chenoune, F. & Muller, F., *op. cit.*, p. 154.; 'jumpsuit', retrieved 2013. Sep. 28,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85300&cid=42822&categoryId=42822>
 - 37) retrieved 2013. Sep. 28, from <http://www.fondation-pb-ysl.net/fr/Couture-376.htm>
 - 38) Chenoune, F. & Muller, F., *op. cit.*, p.154.
 - 39) *Ibid.*, p. 347.
 - 40) Korea Dictionary Research Publishing, *op. cit.*, pp. 869-870.; retrieved 2013. Sep. 26,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0285&cid=700&categoryId=700>
 - 41) Bergé, Pierre, *op. cit.*, p. 36.
 - 42) *Ibid.*, p. 76.
 - 43) Foundation Pierre Bergé - Yves Saint Laurent, *op. cit.*, p. 98.
 - 44) *Ibid.*, p. 98, p. 103.
 - 45) Chenoune, F. & Muller, F., *op. cit.*, p. 358.
 - 46) Lee, M. "Yves Saint Laurent, Paris Couture Crown Prince became Fashion King of the late 20th century", retrieved 2013. Sep. 10, from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35&contents__id=7071&category__type=series
 - 47) Bergé, Pierre, *op. cit.*, p. 31.
 - 48) retrieved 2013. Sep. 10, from <http://www.fondation-pb-ysl.net/en/Couture-376.html>
 - 49) Chenoune, F. & Muller, F., *op. cit.*, p. 363.
 - 50) *Ibid.*, p. 353.
 - 51) Kim, S. (2011), Interchange with Art Contained in the Works of Yves Saint Laurent,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9(2), p. 292.
 - 52) Mower, S. "Fall 2002 Ready-to-Wear Saint Laurent", retrieved 2013. Oct. 2, from <http://www.style.com/fashionshows/review/F2002RTW-YSLRG/>
 - 53) retrieved 2013. Oct. 2, from <http://firstview.com/collection.php?p=0&id=4054&of=4>
 - 54) retrieved 2013. Oct. 2, from <http://firstview.com/collection.php?p=50&id=4054&of=58>
 - 55) retrieved 2013. Oct. 2, from <http://firstview.com/collection.php?p=175&id=5593&of=182>
 - 56) Fashion Insight Editorial Department (2003), Best Collection 2003 SS, Seoul: Fashion Insight Co. p. 19.
DongA TV Editorial Department (2002), *COLLECTION 2003 Spring & Summer*, Seoul: DongA TV Inc., p. 230.
 - 57) retrieved 2013. Oct. 2, from <http://firstview.com/collection.php?p=150&id=5593&of=160>
 - 58) retrieved 2013. Oct. 2, from <http://firstview.com/collection.php?p=125&id=31328&of=134>
 - 59) retrieved 2013. Oct. 2, from <http://firstview.com/collection.php?p=50&id=31328&of=54>
 - 60) Kaya Media Editorial Department (2003), *Harper's BAZAAR COLLECTION 2003 FW*, Seoul: Kaya Media Co., p.116.
 - 61) retrieved 2013. Oct. 2, from <http://firstview.com/collection.php?p=150&id=31330&of=150>
 - 62) DongA TV Editorial Department (2003), *COLLECTION 2004 Spring & Summer*, Seoul: DongA TV Inc., pp. 216-217.; Fashion Insight Editorial Department (2004), *Best Collection 2004 SS*, Seoul: Fashion Insight Co. Ltd., p. 20.; retrieved 2013. Oct. 2, from www.style.co.kr/collection/coll_view.asp?f_name=&menu_id=01010100&s_type=1&s_code=1&d_code=184
 - 63) retrieved 2013. Oct. 2, from <http://firstview.com/collection.php?p=50&id=31330&of=71>
 - 64) retrieved 2013. Oct. 2, from <http://firstview.com/collection.php?p=25&id=31326&of=33>
 - 65) retrieved 2013. Oct. 2, from <http://firstview.com/collection.php?p=175&id=31326&of=183>
 - 66) retrieved 2013. Oct. 2, from <http://www.style.com/fashion-shows/spring-2005-ready-to-wear/saint-laurent>
 - 67) retrieved 2013. Oct. 2, from <http://www.style.com/slideshows/fashion-shows/spring-2005-ready-to-wear/saint-laurent/collection/24>
 - 68) retrieved 2013. 10. 2, <http://www.style.com/slideshows/fashion-shows/fall-2005-ready-to-wear/saint-laurent/collection/39>
 - 69) DongA TV Editorial Department (2005), *COLLECTION 2006 Spring & Summer*, Seoul: DongA TV Inc., p.36.; retrieved 2013. Oct. 2, from www.style.co.kr/collection/coll_view.asp?f_name=&menu_id=01010100&s_type=1&s_code=8&d_code=184
 - 70) retrieved 2013. Oct. 2, from <http://www.style.com/slideshows/fashion-shows/spring-2006-ready-to-wear/saint-laurent/collection/39>
 - 71) retrieved 2013. Oct. 2, from <http://www.style.com/slideshows/fashion-shows/fall-2007-ready-to-wear/saint-laurent/collection/2>
 - 72) Hwang, J. "Vogue Korea meets Stefano Pilati", retrieved 2013. Oct. 2, from <http://www.vogue.com>

- eved 2013, Oct. 16, from www.style.co.kr/star/article/article__view.asp?menu__id=004&c__idx=011003010000117;
- retrieved 2013, Oct. 2, from www.style.co.kr/collection/coll__view.asp?f__name=&menu__id=01010100&s__type=1&s__code=14&d__code=184
- 73) retrieved 2013, Oct. 2, from <http://www.style.com/slideshows/fashion-shows/fall-2007-ready-to-wear/saint-laurent/collection/38>
- 74) retrieved 2013, Oct. 2, from <http://www.style.com/slideshows/fashion-shows/spring-2008-ready-to-wear/saint-laurent/collection/22>
- 75) retrieved 2013, Oct. 2, from <http://www.style.com/slideshows/fashion-shows/fall-2008-ready-to-wear/saint-laurent/collection/38>
- 76) retrieved 2013, Oct. 2, from www.style.co.kr/collection/coll__view.asp?f__name=&menu__id=01010100&s__type=1&s__code=20&d__code=184
- 77) retrieved 2013, Oct. 2, from <http://www.style.com/slideshows/fashion-shows/spring-2009-ready-to-wear/saint-laurent/collection/26>
- 78) retrieved 2013, Oct. 2, from www.style.co.kr/collection/coll__view.asp?f__name=&menu__id=01010100&s__type=1&s__code=22&d__code=184
- 79) retrieved 2013, Oct. 2, from <http://www.style.com/slideshows/fashion-shows/fall-2009-ready-to-wear/saint-laurent/collection/6>
- 80) retrieved 2013, Oct. 2, from <http://www.style.com/slideshows/fashion-shows/fall-2009-ready-to-wear/saint-laurent/collection/17>
- 81) retrieved 2013, Oct. 2, from www.style.co.kr/collection/coll__view.asp?f__name=&menu__id=01010100&s__type=1&s__code=24&d__code=184
- 82) retrieved 2013, Oct. 2, from <http://www.style.com/slideshows/fashion-shows/spring-2010-ready-to-wear/saint-laurent/collection/7>
- 83) Nam, S. "Yves Saint Laurent SS, Play games with chic", retrieved 2013, Oct. 17, from www.fashionbiz.co.kr/TN/?cate=2&idx=115857; retrieved 2013, Oct. 2, from www.style.co.kr/collection/coll__view.asp?f__name=&menu__id=01010100&s__type=1&s__code=39&d__code=184
- 84) retrieved 2013, Oct. 2, from <http://www.style.com/slideshows/fashion-shows/fall-2010-ready-to-wear/saint-laurent/collection/31>
- 85) retrieved 2013, Oct. 2, from www.style.co.kr/collection/coll__view.asp?f__name=&menu__id=01010100&s__type=1&s__code=46&d__code=184
- 86) retrieved 2013, Oct. 2, from <http://www.style.com/slideshows/fashion-shows/spring-2011-ready-to-wear/saint-laurent/collection/6>
- 87) retrieved 2013, Oct. 2, from <http://www.style.com/slideshows/fashion-shows/fall-2011-ready-to-wear/saint-laurent/collection/28>
- 88) DongA TV Editorial Department (2011), *DONGA COLLECTION 2011-12 FW*, Seoul: DongA TV Inc. p. 139; retrieved 2013, Oct. 2, from <http://www.style.com/fashion-shows/fall-2011-ready-to-wear/saint-laurent>
- 89) retrieved 2013, Oct. 2, from <http://www.style.com/slideshows/fashion-shows/spring-2012-ready-to-wear/saint-laurent/collection/20>
- 90) retrieved 2013, Oct. 2, from <http://www.style.com/slideshows/fashion-shows/fall-2012-ready-to-wear/saint-laurent/collection/35>
- 91) retrieved 2013, Oct. 2, from <http://www.style.com/fashion-shows/fall-2012-ready-to-wear/saint-laurent>
- 92) retrieved 2013, Oct. 9, from <http://www.ysl.com/kr>
- 93) DongA TV Editorial Department (2012), *COLLECTION 2013 Spring & Summer*, Seoul: DongA TV Inc., p. 122.
- 94) retrieved 2013, Oct. 2, from <http://www.style.com/slideshows/fashion-shows/spring-2013-ready-to-wear/saint-laurent/collection/8>
- 95) retrieved 2013, Oct. 2, from <http://www.style.com/slideshows/fashion-shows/spring-2013-ready-to-wear/saint-laurent/collection/4>
- 96) retrieved 2013, Oct. 2, from <http://www.style.com/slideshows/fashion-shows/spring-2013-ready-to-wear/saint-laurent/collection/64>
- 97) retrieved 2013, Oct. 2, from <http://www.style.com/slideshows/fashion-shows/fall-2013-ready-to-wear/saint-laurent/collection/31>
- 98) retrieved 2013, Oct. 2, from <http://www.style.com/slideshows/fashion-shows/fall-2013-ready-to-wear/saint-laurent/collection/42>
- 99) retrieved 2013, Oct. 2, from <http://www.style.com/slideshows/fashion-shows/fall-2013-ready-to-wear/saint-laurent/collection/33>
- 100) Blanks, T. "Spring 2014 Ready-to-Wear Saint Laurent", retrieved 2013, Oct. 2, from <http://www.style.com/fashionshows/review/S2014RTW-YSLRG>; I m, S. "Saint Laurent Paris, attachment to wide shoulder [2014 SS Paris Fashion Week]", retrieved 2013, Oct. 18, from <http://fashion.mk.co.kr/view.php?no=919893&year=2013>
- 101) retrieved 2013, Oct. 18, from <http://www.style.com/slideshows/fashion-shows/spring-2014-ready-to-wear/saint-laurent/collection/41>
- 102) retrieved 2013, Oct. 18, from <http://www.style.com/slideshows/fashion-shows/spring-2014-ready-to-wear/saint-laurent/collection/43>
- 103) retrieved 2013, Oct. 18, from <http://www.style.com/slideshows/fashion-shows/spring-2014-ready-to-wear/saint-laurent/collection/33>
- 104) retrieved 2013, Oct. 18, from <http://www.style.com/fashion-shows/spring-2014-ready-to-wear/saint-laurent/collection>